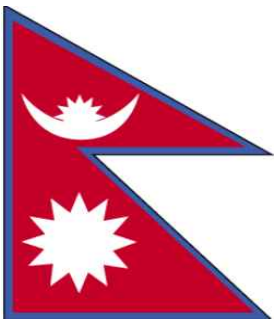

네팔&미얀마을 위한 중보기도

(10월21일~27일)

	네팔	미얀마
개요	o 수 도 : 카트만두 o 인 구 : 29,852,682명 o 면 적 : 147,181㎢ o 언 어 : 네팔어. 전체언어 127.	o 수 도 : 네피도 o 인 구 : 50,495,672명 o 면 적 : 676,577㎢ o 언 어 : 버마어. 전체언어 116.
경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1달러 미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최저 생활수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음. 전체 인구의 90%가 자급형 농업을 하며 GDP의 38%를 차지함. 지형적 고립, 험난한 지형, 마오쩌둥주의자의 충돌로 파괴되거나 손상된 빈약한 사회 기반시설, 가속화된 삼림벌채, 환경피해, 자연재해의 민감성 등 모든 요소가 나라의 발전을 막고 있음. 최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회복은 더 어려워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사실상 고립된 중세 왕국이던 네팔은 지난 50년간 눈에 띄게 진전했음. 수력발전과 관광산업이 커다란 잠재력을 보이고 있음.	티크 숲과 비옥한 농경지, 보석과 광물, 해양의 석유와 가스 등 자원이 풍부하지만 국민은 대부분 가난하거나 최저 생활수준임. 군사정부의 약탈과 파괴로 아시아의 곡창으로 불리던 미얀마는 3분의 2 이상의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대부분 1인당 하루 평균 1달러 이하 생활비로 살아가는 형편이 되었음. 불법 약물인 암페타민이 아편을 대체했음. 물가 상승, 정치적 고립과 더불어 2008년에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피해를 입으면서 이미 빈곤한 국민이 받는 압력은 더욱 강화되었음.
정치	오래된 세습 군주제가 2008년도에 막을 내리고 다수당 입헌 공화국이 되었음. 식민 통치를 받은 역사가 없으며 외부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된 상황이 1951년에 끝났음. 1962년에 국왕은 정당 없이 정부체제의 실권을 장악했음.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주로 마오쩌둥주의 반군에 의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불안이 있었음. 2008년에는 2년간 다른 정당들과의 공방 끝에 마오쩌둥주의 정부가 들어섰음. 그러나 2010년에 총리가 사임했음. 정부는 파산하고, 헌법 개혁은 연기되었음. 2만 명의 강력한 마오쩌둥주의 군대가 국군으로 통합되는 문제도 복잡하고 민감한 사항임. 지역 공동체의 빈곤을 해결하는 일과 "외부 간섭"의 저항적 인식이 정치적 수사학을 지배하고 있음.	인도에 속해 있다가 영국에게 지배당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이 점령함. 1948년 독립했으나, 중앙정부가 약속한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종족 지역에서 무장 분리 운동을 일으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1990년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지만 군부는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를 감금하고 선거 결과를 묵살함. 아웅산 수지 여사는 대부분의 생을 억류된 채 보냄. 비밀 군사정부인 "국가 평화발전 위원회"는 반대파를 투옥시키고 강제 노동과 집단 학살을 일삼았으며 소수 집단을 억압하고 모든 반대 의견을 억눌렀음. 2007년에 일어난 저항을 강력 탄압하고 수도를 네피도로 이전한 일로 국민은 군사정부에서 더 멀어짐. ASEAN 회원국이며, 2008년 부정 선거로 군사정권의 새 헌법이 작성됨. 다음 선거는 2010년에 실시될 예정임.
기도제목	지도자 훈련이 교회에서 정규 훈련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빈곤한 가운데 목회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종교적 다수,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핍박으로써 신자들이 인내를 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소수 종족 출신이지만 이것이 쓴 부리가 되지 않고 다른 종족에 대한 증오, 신앙의 타협, 선교 비전의 상실이라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핍박과 가난, 고립이라는 절망 가운데서도 교회를 정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동문	*현재 39명의 ACTS 동문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52명의 ACTS 동문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출처: 기도24·365(세계기도정보)